

첨단기술 활용하여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지능형 해상교통환경 조성한다

- 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(2026~2030) 수립

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「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(2026~2030)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
* 「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」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

1차 기본계획(2021~2025)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* 도입을 통해 선박의 충돌·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, 인명구조 지원(조난선박 142척, 521명) 및 디지털 해상복지 증진(원격의료 지원 등)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.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, 탈탄소·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운항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*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고 해양사고 예방 지원(충돌좌초 경보 등), 어선 자동 출입항 신고 및 원격의료 지원 등 안전·편의 서비스 제공(일평균 7천 척 이용)

이번 계획을 통해 연안선박 종사자는 바다날씨, 해양사고 속보 등 해역별 맞춤형 상세 정보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, 고령운항자 및 외국인선원 등 디지털 취약 운항자도 단말기 기능 간편모드 및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욱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팀 장	한승현 (051-773-6141)
	첨단해양교통관리팀	담당자	사무관	배철수 (051-773-6233)

참고

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('26~'30)의 기본계획(제2차) 수립 필요*

* 「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」 제5조(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)

□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

- (해양사고 예방)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의 주요 해양사고율*이 미설치 선박 대비 45% 낮고, 조난선박 142척(521명) 구조 지원('21~'24년)

* [충돌좌초접촉 사고 상대적 저감율] ('21.) 46% → ('22.) 64% → ('23.) 43% → ('24.) 26%

- (이용자 대폭 증가) 연안선박에서 단말기(1.1만척)와 모바일 앱(4.9만척)을 통해 바다내비 서비스(핵심 8종)를 이용 중이며, 일 평균 7천척 이용

* 단말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(1,500척) 대비 약 7배 많은 선박(1.1만척)에 단말기 보급

- (해상교통 플랫폼) 관계기관(8개) 정보연계, 선원 원격 응급처치 지원* 및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운영 등 서비스 대폭 확대(11개→29개) 제공

* [의료지원] ('23) 100척/253건 → ('24) 110척/1,252건 → ('25.10) 127척/1,548건

- (위기대응 협력) 바다내비 웹 포털을 軍(233개소)·국정원(17개소)·관세청(54개소)에 연계하여 의심선박 식별·관리업무 지원

□ 제2차 기본계획 방향

비전	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지능형 해상교통 실현				
목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◆ 서비스 이용 선박 주요 해양사고 (충돌·좌초·접촉) 30% 저감 ◆ 저궤도 VDES 위성 개발(2기 이상) </td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◆ 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(3개) 개발 ◆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(MCP) 운영센터 유치 </td> </tr> </table>	◆ 서비스 이용 선박 주요 해양사고 (충돌·좌초·접촉) 30% 저감 ◆ 저궤도 VDES 위성 개발(2기 이상)	◆ 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(3개) 개발 ◆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(MCP) 운영센터 유치		
◆ 서비스 이용 선박 주요 해양사고 (충돌·좌초·접촉) 30% 저감 ◆ 저궤도 VDES 위성 개발(2기 이상)	◆ 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(3개) 개발 ◆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(MCP) 운영센터 유치				
추진 전략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1. 첨단 ICT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구현</td> </tr> <tr> <td>2.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</td> </tr> <tr> <td>3. 미래 해상환경 지원체계 구축</td> </tr> <tr> <td>4.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</td> </tr> </table>	1. 첨단 ICT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구현	2.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	3. 미래 해상환경 지원체계 구축	4.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
1. 첨단 ICT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구현					
2.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					
3. 미래 해상환경 지원체계 구축					
4.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					

□ 전략별 주요내용

- ① (첨단 ICT 기반) AI·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 고도화***(R&D) 및 저궤도 위성통신 연계한 글로벌 서비스 등 추진

 - * 비정상 운항패턴(졸음·음주운항 등) 탐지, 실시간 충돌·좌초 경고, 최적 항로 추천 등
- ② (이용자 중심 서비스*)** 이용자 수요 반영한 **다양한 단말기 보급**(통합단말 등), 디지털 취약 운항자 서비스 강화 및 **국제표준 수로제품(S-100) 제공**

 - * ▶ 단말기 기능 간편모드(고령운항자 用), 다국어 지원 및 음성인식 기능 등 도입
 - ▶ 인터넷 포털(네이버, 다음 등) 및 민간 상용 '앱'과 연계하여 일반국민 활용성 제고
 - ▶ AI 활용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및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확대 운영 등
- ③ (미래 해상환경 지원) 북극항로 안전운항***(통신망 등) 확보, **탄소배출 관리 플랫폼**** 제공 및 **新 해상구조물**(해상풍력 등) 해역 안전관리 지원

 - * 극궤도 VDES 위성 개발, 실시간 해빙·유빙 정보 등 북극항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
 - ** AI 기반 탄소배출량 예측 서비스(민간 협업), 친환경 인프라(전기·LNG 충전소 등) 정보 제공 등
- ④ (국제협력 등)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*(MCP) 운영센터 유치** 및 해양디지털 항로 **국제 공동실증** 등을 위한 **글로벌 네트워크 강화**

 - * 해양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적 시행을 위해 육상-선박 간 연결하는 정보공유 플랫폼